

‘라피규라 바이 더 스튜디오 케이 맨’의 조형적 특성과 디자인 발전 방안 연구

김 정 희*

가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부 교수*

요 약

본 연구는 남성 정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더 스튜디오 케이(the Studio K)’의 ‘라피규라(LA FIGURA)’ 남성 정장 라인의 기존 디자인의 성향을 연구 및 분석하고, 라피규라 바이 더 스튜디오 케이 맨이 지향하는 남성 정장의 ‘위트(wit)’가 무엇인지 조형적 특성을 통해 파악하며, 브랜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남성 맞춤 정장 디자인의 발전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성 맞춤 정장 디자인 발전 방안으로 역사적 배경 및 소재와 실루엣, 디테일을 중심으로 문헌조사와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남성 정장의 현대화가 시작된 대표적인 시점인 17세기 중반의 찰스 2세 왕정 당시부터 20세기까지 남성 정장의 역사를 연구 분석한다. 두 번째로, 현대 남성 정장에 적용된 나라별 정장 디자인의 다양한 스타일과 각 스타일이 탄생하게 된 계기를 영국, 이태리, 미국을 중심으로 분석 및 요약한다. 세 번째로, 스튜디오 케이 맨 정장의 전체적인 종류와 주요 특징을 알아보고, 위와 같은 정보를 토대로 2013년 F/W부터 현재까지의 라피규라 바이 더 스튜디오 케이 맨의 디자인 특징을 색상과 소재, 실루엣과 디테일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차별화 요소 및 라피규라 바이 더 스튜디오 케이 맨만의 남성 정장의 위트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위의 연구를 중심으로 트렌드에 따른 시즌감을 반영하여 디자이너 브랜드의 특성 부각, 체형에 따른 패턴의 연구, 캐주얼과 매칭 할 수 있는 부각된 스타일링 팁으로 브랜드를 발전시키는데 핵심요소가 되는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남성 정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와 라피규라 바이 더 스튜디오 케이 맨의 발전 전개를 위하여 반영해야 하는 요소들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절차이다.

주제어 : 남성 정장, 위트, 소재, 실루엣, 디테일

이 논문은 2016년도 가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

+교신저자: 김정희, jhkim0320@gachon.ac.kr

접수일: 2016년 10월 28일, 수정논문접수일: 2016년 11월 21일,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20일

I. 서론

1. 연구목적 및 의의

현대 남성복은 서구 역사와 사회의 동시대적 특성을 반영한다. 남성복의 현대화를 촉진시킨 대표적인 예로 ‘쓰리피스 슈트(a three-piece suit)’를 들 수 있다. 쓰리피스 슈트는 17세기 영국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위기로 하여금 탄생한 현대의 남성 정장 양식이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맞춤식 정장의 수요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오르고 맞춤식 정장 대신 대량으로 생산된 기성복을 찾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기성복 정장은 그 스타일의 수가 적고 개성을 표현하기에는 개인에게 한계가 있다는 결점이 있다. 따라서 남성 정장 기업들은 매년 혹은 매 시즌마다 정장 디자인 스타일에 변화를 주어 ‘유행사이클(trend cycle)’을 만들었고, 수요의 감소를 해결하였다. 최근까지 기성복을 중심으로 남성의 정장이 유행하고 있으나 개인 체형에 맞게 디자인된 맞춤 정장에 비해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새로운 스타일만을 고집하는 것이 특별히 바람직한 맛을 구현해 내다 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남성 정장 정체성에 혼란을 빚어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최근 남성복 시장의 맞춤 정장은 2015년 인기상영한 영화 『Kingsman』에서 ‘킹스맨 정장’이라는 칭어가 생길 정도로 영화매체의 영향이 컸다. 이는 한국의 남성 맞춤 정장 문화를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맞춤식 남성 정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기존의 인지도와 긍정적인 특성이 현저하게 부각되는 효과가 있었다. 멋내기에도 관심 있는 젊은 남성층에게는 더욱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번 계기로 정체기에 머물렀던 맞춤 정장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남성 정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더 스튜디오 케이(the Studio K)’의 ‘라피규라(LA FIGURA)’ 남성 정장 라인의 기존 디자인의 성향을 연구 및 분석하고, 라피규라 바이 더 스튜디오 케이 맨이 지향하는 남성 정장의 ‘위트(wit)’가 무엇인지 조형적 특성을 통해 파악하며, 브랜드를 중심으로 세분화된 남성 맞춤 정장 디자인의 발전된 방향을 제시하여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남성 맞춤 정장 디자인 발전 방안으로 소재와 실루엣, 디테일을 중심으로 문헌조사와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연구 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로는 국내 남성 비즈니스 캐주얼 스타일의 착장 유형 연구(An, 2009)가 있다. 패턴연구 및 디테일과 스타일링 전개 등 의 연구로 현대 남성 예복의 패턴과 봉제기술 연구(Lim et al., 2010), 현대 남성 예복 현황과 디자인 기획(Kim et al., 2010)을 들 수 있다. 선행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맞춤 정장 시장의 현황과 브랜드 특성에 적합한 디자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첫 번째로, 남성 정장의 현대화가 시작된 대표적인 시점인 17세기 중반의 찰스 2세 왕정 당시부터 20세기까지 남성 정장의 역사를 연구 분석한다. 두 번째로, 현대 남성 정장에 적용된 나라별 정장 디자인의 다양한 스타일과 각 스타일이 탄생하게 된 계기를 영국, 이태리, 미국을 중심으로 분석 및 요약한다. 세 번째로, 정장의 전체적인 종류와 주요 특징을 알아보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2009년 F/W부터 현재까지 더 스튜디오 케이 남성복의 디자인 특징을 색상과 소재, 실루엣과 디테일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라피규라 바이 더 스튜디오 케이 맨 만의 남성 정장의 위트가 무엇인지를 조형적 특성을 통해 연구한다. 결과적으로

남성 정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와 라피규라 바이 더 스튜디오 케이 맨의 발전 전개를 위하여 반영해야 하는 요소들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절차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남성복의 역사

역사적, 물리적 사건과 같은 요소들은 의복 변화의 계기가 되기도 하며, 각 시대별로 나타나는 정서적 특징이 의복 변화에 크게 기여한다.

17세기 왕정복고 시대의 찰스 2세가 처음 도입시킨 새로운 ‘쓰리피스 슈트’는 절제와 모던함, 그리고 내구성 등이 고려되었고, 찰스 2세는 이러한 이념을 강조하면서 그 자신이 백성들의 모범이 되고자 하였다(Kuchta, 2002). 또한 정장조끼는 17세기 후반에 의복사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쓰리피스 정장은 새로운 남성성과 심미성을 구축하는 데 기초기반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쓰리피스 슈트가 탄생하면서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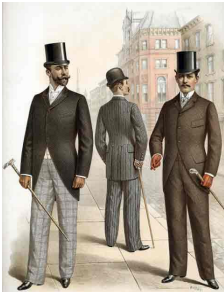
복의 현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교만하고 건방진 옷차림은 나약함을 초래하고, 남성의 도덕성을 상실하게 하여 나아가 영국의 도덕적 질서를 파괴한다’, ‘부드러운 느낌의 의복과, 술, 육식은 내적 심리와 육체 모두를 나약하게 만든다’(Kuchta, 2002)라고 말할 정도로 찰스 2세는 남성의 의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쓰리피스 정장은 영국 공화당의 덕목인 ‘평이함(simplicity)’을 내포하고 있고, 공화당의 화려한 의복에 대한 반감을 왕의 권한으로 표했다고 볼 수 있다(Kuchta, 2002). 17세기의 영국식 의복은 당연히 영국의 율을 의미했고, 정장조끼와 검은색 ‘튜닉(tunic)’을 입는 것이 대표적이었다.

<Table 1>과 같이 18세기의 ‘덴디즘(dandyism)’은 가장 핵심적인 정의로서 ‘냉철함’이라고 의미하며, ‘지적인 덴디즘’이라고도 칭했다. 대중적으로 덴디즘은 ‘완벽한 신사’의 이상형과 ‘귀족적인 남성’을 의미하기도 한다(Figure 1).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대중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 양상이 널리 정착하면서 과거의 화려한 의상이나 보석 장식이 루이 14세나 에드워드 왕자의 호화로움과 사치스런 삶과 상반되는 남성복의 실

Table 1. Century men's transition process.

18th	19th	20th	21st
			
Figure 1. 18 th century's dandy suits. From Dandy. (n.d.). https://en.wikipedia.org	Figure 2. 19 th century's men's suits. From Vintage Handsome Men. (n.d.). http://vintagehandsomemen.tumblr.com	Figure 3. US college men in Hart Schaffner & Marx suits in 1917. From Flusser. (2002). p. 81.	Figure 4. Daniel Craig suit style. From THE BONDS. (n.d.). http://www.007.com

용성과 경제적 합리성이 중요시되었다. 19세기에 파리가 여성 패션의 중심지였던 반면에, 런던은 남성 중심의 스타일이 더 크게 확산되고 있었다. 지속적으로 댄디즘과 같이 출중한 외모, 고급스러운 말투, 그리고 레저 활동 등의 라이프스타일에 큰 중요성을 두는 중상위 계층의 남성 스타일이 탄생하였다(Figure 2).

20세기 에드워드 시대에 과거의 두터운 남성 코트를 대신한 재킷이 많은 남성들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다양하고 독특한 장식을 옷에 가미하는 것도 에드워드 시대의 남성 에티켓 하에 발전되었다. 하지만 에드워드 시대 후기에 세계 1차 대전이 발생하면서 남성복에 새로운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Sherwood, 2010). 전쟁으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귀족들의 호화로운 만찬이나 상류층의 사교모임은 더 이상 지속하지 못했다. 전반적인 남성복이 입기 편안하고, 날씨와 장소에 따라 바뀌 입을 수 있도록 편리한 디자인으로서 남성 의상을 발전시켰고, 남성들은 군복과 같이 입기 쉽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옷에 익숙해지기도 하였으며, 무겁고 불편한 양복을 멀리하기 시작하였다(Figure 3).

21세기에 들어와서, 댄디즘의 의미가 풍자스럽고 우스꽝스럽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으나, ‘웰-그룸(well-groomed)’ 혹은 ‘웰-드레스드(well-dressed)’라는 잘 차려입은 남성을 의미한다. 남성의 품위와 개성을 양복으로 나타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역사적인 양복을 재현함과 동시에 유행있는 스타일을 연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Figure 4).

2. 남성 정장 디자인의 조형적 특징

남성 정장 디자인의 조형적 특징을 슈트의 전통성을 대표하는 영국과 편안한 실루엣의 미국, 유럽 대륙 스타일의 중심인 이태리 슈트 실루엣을

나라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영국

전설적인 세빌로우(Savile Row)가의 재봉사들에 의해 영국의 왕족들은 변함없는 스타일의 정장을 추구했다. 길게 가봉된 정장 재킷, 잘록하게 들어간 허리 재단 모두 영국의 군인 의상으로부터 얻게 된 형태로 영국 남성 정장의 대표적인 스타일이 되었다. 가슴 부위와 어깨선은 부드럽게 떨어뜨리고, 허리 부분은 조였으며, 나팔 모양의 재킷 하단, 깊게 패인 옆트임, 다소 짧은 듯한 소매와 길이는 몸에 착 달라붙는 스타일이다. 영국 남성의 위풍당당함과 귀족들의 날씬한 몸매를 가장 잘 강조하고 있다(Flusser, 2002).

20세기 중반까지는 영국의 왕족의 스타일을 기준으로 세계의 신사들의 의상이 결정되었다. 과거 100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왕족은 에드워드와 웨일즈(Wales) 왕자였는데, 에드워드 7세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첫 번째 남성복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에드워드 8세(Edward Albert Christian George Andrew Patrick David)는 빅토리안 시대와 현대의 두 세기를 잇는 다리역할을 하였다. 에드워드가 유행시킨 의상과 의상 소품의 예로는 독일식 검은 홈브르크(homburg) 모자, 디너 재킷(dinner jacket), 짧은 상의, 정장바지의 옆 부분에 주름을 넣는 방식, 바지의 하단부분을 접어 올려 입는 새로운 방식과 경마대회에 갈 때 입을 트weed 재킷(tweed jacket) 등이 있다. <Figure 5>, <Figure 6>, <Figure 7>, <Figure 8>, <Figure 9>, <Figure 10>, <Figure 11>이 대표적인 영국 슈트의 예로 볼 수 있다.

에드워드의 체크무늬 정장, 체크무늬 셔츠, 줄무늬 타이와 패턴무늬의 손수건과 투톤 신발은 유행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더블 브레스티드 정장을 신사들이 낮 동안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하였다. 편안한 정장을 좋아했고, 라이닝이 들어가지



Figure 5. The Prince of Wales' comfortable and easy-movable sporting suits.
From Anderson, (2009), p. 60.



Figure 6. Midnight-blue formal wear.
From Anderson, (2009), p. 60.



Figure 7. Anderson & Sheppard tailored suit and the Prince of Wales.
From Anderson, (2009), p.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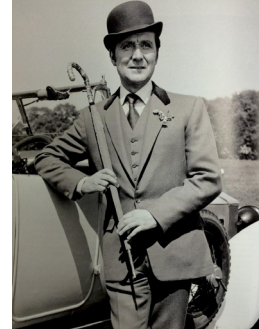


Figure 8. John Steed with the British suit and note the lack of a breast pocket.
From Anderson, (2009), p. 72.



Figure 9. Edward, Prince of Wales: his motto of 'Dress Soft'.
From Anderson, (2009), p. 60.



Figure 10. The Prince of Wales checked from head to toe.
From Anderson, (2009), p. 60.



Figure 11. Sir Anthony Eden and Sir Samuel Hoare in single-breasted peak-lapel suits with v-shaped silhouette.
From Anderson, (2009), p. 60.

얇은 재킷이나 스포츠 재킷 등이紳사들에게 널리 유행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에드워드는 투톤 신발과 스웨이드 신발을 즐겨 신었고, 갈색 스웨이드 신발에 남색 정장을 매치하여 입는 등 이전에는 없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정장바지에 줄 대신 벨트를 더 선호했고, 정장바지와 반바지에 단추대신에 지퍼를 달아 입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도 시도했다. 골프를 치러 나갈 때에는 무릎 4인치 아래에 바지의 천을 내려입고 다니는, 니커보커(knickerbocker) 스타일을 취하고 나갔다(Anderson, 2009). 블랙 정장보다 사진에 더 눈에 띄게 잘 나

오는 미드나잇 블루(midnight-blue) 색상을 처음으로 남성 저녁 의상에 썼을 정도로 매우 독특하고 획기적인 시도로, 남성복의 선구자였다. 그리고 에드워드가 담배케이스를 넣을 수 있도록 에드워드의 정장바지의 왼편 주머니는 더 넓게 봉제한 것과 정장 안에 복대를 둘러 탄탄한 상체를 보이려 한 것 등이다.

슈트의 전성기에는 런던의 세빌로우가와 메이페어(Mayfair)가의 재봉사들에 의해 맞춤식 양복이 활성화 되었다. 고객이 슈트 천, 안감, 수선, 단추와 그 외 모든 것들을 직접 정하고, 그들의 체

형에 맞춰서 옷이 수작업으로 제봉되는 완전한 개인형 맞춤식이라는 점이 맞춤 양복의 큰 장점이다. 또한 안감과 패딩과 같은 복잡한 내부구조도 수작업으로 제봉하고, 의복의 형태 맞추기도 상당한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맞춤식 정장은 일류의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적어도 50시간 정도의 수작업 활동을 통하여 세빌로우가의 맞춤정장이 만들어진다. 손으로 꿰매는 식의 수작업은 기계로 꿰매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정확하다는 점에서 마니아들이 많이 찾고 있다(Sherwood et al., 2010). 한 고객만을 위하여 특별하게 재단되었다는 점에서 최근까지 남성들의 최상의 호화로운 구매로 인식되어진다.

2) 미국

가장 일반적인 미국식의 양복은 1950년대에 대중에게 가장 인기있고, 유명했던 브룩스 브라더스(Brooks Brothers)의 아이비리그 룩(ivy league look)이다. 브룩스 브라더스의 ‘색 슈트(sack suit)’는 최초로 대량생산되었던 정장으로, 평범한 가봉의 정장바지와 중간트임, 플랩 포켓(flap pocket), 자연스러운 어깨선과 세 개의 단추인 싱글 브레스트트 재킷과 함께 평범하고, 중립적이며 남성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듯한 스타일로 자리 잡았다. 미국식 정장은 ‘최소한의 장식이 가장 대중적이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보여주기도 하였다(Banks et al., 2011).

특히 20세기 당시에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생들, ‘더치맨(Dutchman)’ 그리고 ‘프레데릭 솔테(Frederick Scholte)’ 등의 상류층의 남성들이 이런 변화에 기여하였다(Banks et al., 2011). 1920년대는 ‘재즈 에이지(Jazz age)’라고도 불리면서 의상에 화려하고 현란한 색상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것은 전쟁의 참담함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리우드 영화배우인 루돌프 발렌티노(Rudolph Valentino)가 이 시대의 남성 중 대표적인

인물이다(Musgrave, 2009). 1930년대에는 대공황이라는 세계적인 경제공황 이후에 할리우드와 같은 스타 기반의 시스템을 통하여 크게 확산되고 유행하였다. 프레드 아스테어(Fred Astaire)나 도글라스 페어뱅크 주니어(Douglas Fairbanks Jr)과 같은 스타의 스타일도 유행하였다.

몬테규 버튼(Montague Burton)과 조셉 헵워스(Joseph Hepworth)와 같은 유명한 재봉사가 의상을 디자인한 영국의 남성 스타일이 대표적이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엔 절제된 스타일의 양복과 불필요한 장식을 뺀 의복이 의무화되었다(Musgrave, 2009). 1940년대엔 미국의 트위드 소재로 만든 양복은 전쟁 중에 금지되기도 하였다. 1950년대에는 테디보이즈와 같은 에드워드 시대의 댄디한 남성들을 표방한 젊은 청년들이 무리 짓기도 하였다. 타이트하고 성적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양복 스타일도 유행하였다. 회색 플란넬 양복이 보편적이었는데, 새로운 인조섬유가 생겨났다. 넷 킹 콜(Nat King Cole)과 미국의 전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Harry Truman)도 이 당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1970년대에는 넓은 라펠과 넓은 어깨와 분명히 드러나는 허리 라인과 장식적인 직물 등이 그 당시 독특한 남성복 스타일이었다(Musgrave, 2009). 『The Godfather』, 『Chinatown』 그리고 『The Great Gatsby』와 같이 1920년대와 1930대를 대표하던 영화들에 등장하던 양복 스타일을 재현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의 남성복은 공식적으로 캐주얼하고 윤이 나는 ‘브이-쉐입(v-shape)’의 양복이 대중화되었다.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나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와 같은 디자이너들이 이 시기 남성 양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Musgrave, 2009). 1990년대에는 깔끔한 검정색 양복이 가장 흔한 남성복 종류가 되었다. 헬무트 랭(Helmut Lang)이나 질 샌더(Jil Sander) 그리고 프라다(Prada)가 핵심적인 브랜드이며, 영화 『Reservoir Dogs(1992)』, 『Pulp Fiction(1994)』 그리고 『Men in



Figure 12. Cary Cooper's lower-sitting lapels and v-shaped neck.
From Flusser, (2002). p. 238.



Figure 13. Montague Burton's D.B suit in 30s.
From Flusser, (2002). p. 80.



Figure 14. Cary Grant in 1956: the movie 'Notorious'.
From Flusser, (2002). p.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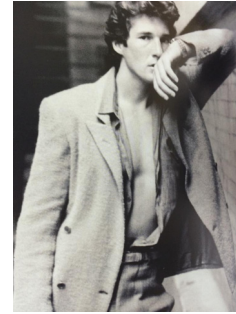


Figure 15. Richard Gere in 1980 wearing Giorgio Armani's suit.
From Flusser, (2002). p. 85.



Figure 16. 'The Wrong Man' in the Gray Flannel Suit(1956): American style.
From Flusser, (2002). p. 100.



Figure 17. Yves St Laurent wearing safari suit in 1966.
From Flusser, (2002). p. 102.



Figure 18. Rudolph Valentino.
From Flusser, (2002). p. 118.



Figure 19. Cole Porter and Douglas Fairbanks Jr. in double-breasted dinner jackets.
From Flusser, (2002). p. 119.

Black(1997)』 속에 등장하는 남성 인물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것도 더욱 활성화되었다. 구찌(Gucci), 입생로랑(Yves Saint Laurent) 그리고 디올 오므(Dior Homme)의 마른 체형 중심의 간단하고 엘리트적인 스타일의 남성복이 일반화되었다(Musgrave, 2009). <Figure 12>, <Figure 13>, <Figure 14>, <Figure 15>, <Figure 16>, <Figure 17>, <Figure 18>, <Figure 19>가 대표적인 미국 슈트의 예로 볼 수 있다.

3) 이태리

세 번째로 유럽 대륙의 스타일(The continental or European look)은 이태리를 중심으로 시작해 프랑스까지 이어져갔으며, 세부적인 디자인 없이 단

순한 미국의 ‘색 정장’과는 극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어깨선과 전체적으로 짧은 기장의 재킷 그리고 작고 높이 자리 잡힌 암홀은 가슴부위를 더욱 강조했다. 얇은 플랩리스 포켓(flapless pocket), 노치드 라펠(notched lapel)과 싱글 혹은 더블 브레스티드 재킷은 엉덩이와 가슴부위에 딱 맞게 디자인되었고, 정장바지 또한 짧은 허리선과 더불어 타이트하게 가봉되었다(Jetted Pockets vs. Flap Pockets, 2010). 이러한 유럽식의 V자 형태의 재킷과 신체에 꼭 맞는 정장바지는 젊음으로 하여금 색시함을 강조하는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1975년에 보여준 첫 번째 아르마니 컬렉션은 소재와 색상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과 함께 남성 정장 혁신에 계기



Figure 20. 1975 Italian designers Carlo Palazzi's suits.
From Flusser. (2002). p. 80.



Figure 21. Suits of Armani, Valentino and Yves St Laurent from F/W in 1974.
From Flusser. (2002). p. 81.



Figure 22. Brioni's 1969 'Sinfonia Blu' collection.
From Flusser. (2002). p. 84.

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복 내부의 패딩과 캔버스 천을 없애고, 입기 편안한 상태로 완성 되었다고 그 당시 이태리의 대형 의류기업인 지에프티(GFT, Gruppo Finanziario Tessile)의 한 관계자가 이야기한 바 있다. 사람들에게 GFT 아르마니의 새로운 남성 정장 컬렉션은 매우 충격적이었고, 소재가 무척 부드러워서 입었을 때 형태가 바뀌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르마니의 정장을 찾았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탈리아 디자이너들은 세빌로우가의 재단사들을 위협할 정도로의 위상을 갖고 있었다(Musgrave, 2009). 이탈리아 재단사들은 어떻게 옷을 평평하게 혹은 입체적으로 자를 수 있는지 알지만, 이것은 세빌로우가나 아이비리그의 재단사들에게도 물론 가능한 일이다. 이탈리아 스타일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직관적 관점 차이에 있다. 기존의 흔히 아는 정장 디자인을 넘어서 실제로 전통적인 남성 정장과 다른, 젊게 보이는 정장을 만들 뿐만 아니라 오직 젊은 사람들에게만 어울리는 정장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기도 하다. 식상한 전통적 정장 패턴을 젊은이들에게 제안하거나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젊은 감각에 맞추어 정장을 철저하게 새로 디자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컨셉은 재미없고, 고루한 남성 재단을 신세대가 주도하는 남성 정장의 주류로 이끌어 들인 셈이다(Musgrave,

2009). 그 당시 영국의 한 방송사는 이태리의 정장 스타일에 대한 찬사를 보낼 만큼 그 당시 처음 소개된 이태리식 남성 정장이 얼마나 감각적이고, 새로운 미를 보여줬는지 알 수 있다.

이어서 1950년대 후기와 1960년대 초기의 클래식 이탈리아 정장의 모습은 범-프리저(bum-freezer) 재킷을 중심으로, 높게 여민 좁은 라펠과 좁고 매끄러운 바지정장 그리고 끝이 뾰족한 신발을 함께 갖춘 스타일이었다. 이 스타일은 1950년대 후반에 미국 대륙 스타일과 1960년대 초반의 영국의 모드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범-프리저 스타일에 대한 한 당시의 해석은 ‘현재 이탈리아 스타일은 좀 더 힘차고, 캐주얼한 스타일이다’와 같다고 전해졌다(Musgrave, 2009).

이탈리아산 패브릭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하며 널리 알려져 있다. 1970년대 중반에는 이탈리아의 남성 정장의 생산력은 대단했다. 1971년에는 이탈리아의 상위권 기업들이 플로랑스(Florence)에서의 ‘피티 우오모(Pitti Uomo)’ 박람회를 통해 해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일 년에 두 번 쇼를 열었다. 30년이 넘도록 수많은 해외 남성 전문 유명 바이어들을 한자리에 모았고, 피티 우오모를 통하여 연중 두 번의 쇼케이스를 열어 초호화 재단사를 대표하는 키톤(Kiton) 등의 이태리 브랜드의 클래식 남성 정장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이 최고가의 생산품들은 현재까지 이탈리아의 정



Figure 23. The Studio K Men 2013 Collection: Board Room I.
From the board room 2013 Lookbook. (2013).
<http://blog.naver.com/lafigura>



Figure 24. The Studio K Men 2013 Collection: Board Room II.
From the board room Lookbook. (2013).
<http://blog.naver.com/lafigura>

교한 수재단 기술과 의류 명성을 알리도록 하는 데에 큰 효과를 주고 있다. <Figure 20>, <Figure 21>, <Figure 22>가 대표적인 이태리 슈트의 예로 볼 수 있다.

III. 라피규라 바이 더 스튜디오 케이 맨의 조형적 특성 및 위트 분석

현대의 남성 맞춤 정장의 특징은 기존의 전통적인 남성 정장 디자인에 개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독특한 요소들을 함께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남성 정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소재의 색상과 무게감, 정장의 스타일과 절개, 세부적인 장식 요소 그리고 맞춤의 수준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들이다. 영국, 미국, 이태리 슈트의 연구를 중심으로 브랜드의 조형적 특성 및 위트를 브랜드만의 소재와 장식적인 요소, 절개나 가봉단계를 통한 실루엣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라피규라 바이 더 스튜디오 케이 맨의 스타일, 실루엣, 소재, 디테일의 디자인 및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여 위트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며 웰-그룸 혹은 웰-드레스드의 의미와 같이 잘 차려 입은 남성의 의미가 옛 멋을 재현함과 동시에 이전의 더 스튜디오 케이 맨의 클래식과 복고에서

벗어나 더 정제되고 모던한 스타일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조형적 특성

1) 스타일

남성 정장에 있어서 재킷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써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정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영국의 정장으로 부드럽고, 패드가 없는 어깨선, 길고 잘록하게 들어간 하이 웨이스트, 2-3개의 단추의 더블(double) 혹은 싱글 브레스티드(single breast) 그리고 뒷판 옆트임을 특징으로 하는 정장이다. 두 번째, 대륙풍의 스타일(continental style)이라고도 불리는 이태리식 정장이 있다.

영국 정장과 대륙풍 스타일의 이태리 정장 실루엣을 바탕으로 <Figure 23>, <Figure 24>를 보면 2013년 ‘보드룸(Board Room)’ 주제의 피트 된 쓰리 버튼 싱글 슈트와 더블 브레스티드 슈트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 25>, <Figure 26>, <Figure 27>를 보면 2014년 ‘트래블메이커(Travelmaker)’ 주제에서는 장식된 아웃포켓의 데님 슈트와 울 저지 소재의 슈트를 제시하였다. 2015년 S/S시즌 ‘핫섬머(Hot Summer)’에서는 <Figure 28>, <Figure 29>, <Figure 30>, <Figure 31>을 보면 동일소재의 셔츠



Figure 25. The Studio K Men 2014 Collection: Travel maker I.
From Travel Maker_Denim SUIT. (2014).
<http://blog.naver.com/lafigura>



Figure 26. The Studio K Men 2014 Collection: Travel maker II.
From Travel Maker_Wool Jersey Suit. (2013).
<http://blog.naver.com/lafigura>



Figure 27. The Studio K Men 2014 Collection: Travel maker III.
From Travel Maker. (2013).
<http://blog.naver.com/lafigura>



Figure 28. The Studio K Men 2015 Collection: Hot Summer I.
From Sea Collection. (2015a).
<http://blog.naver.com/lafigura>



Figure 29. The Studio K Men 2015 Collection: Hot Summer II.
From Sea Collection. (2015b).
<http://blog.naver.com/lafigura>



Figure 30. The Studio K Men 2015 Collection: Hot Summer III.
From Sea Collection. (2015c).
<http://blog.naver.com/lafigura>



Figure 31. The Studio K Men 2015 Collection: Hot Summer IV.
From Sea Collection. (2015d).
<http://blog.naver.com/lafigura>

와 재킷의 스타일을 제시하여 스타일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 실루엣

정장의 절개는 전체적인 실루엣과 신체에 맞는 비율을 기본적인 조건으로 갖는데, 신체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식의 정장 맞춤이 가장 적합하다. 정장 맞춤은 표준 신체치수를 토대로 생산된 기성복과 다르게 개인 남성의 신체치수를 반영하여 직접 손으로 제작하고, 기록으로 남겨 이 후에 수선할 때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훨씬 자연스럽고, 높은 수준의 정장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드라마를 위한 남성 정장 제작은 출연자의 실루엣과 이미지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여겨진다. 대표적인 예로 <Figure 32>, <Figure 33>, <Figure

34>를 볼 수 있다.

3) 소재

적절한 소재의 사용은 남성 정장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요소이다. F/W 정장의 보편적인 소재는 울이 있으며, 고가의 트위드와 캐시미어는 고급스러움을 더해 준다. <Figure 36>, <Figure 37>을 예로 볼 수 있다. S/S 정장의 소재로는 실크, 면, 개버딘, <Figure 35>와 같은 마를 들 수 있으며, 시즌과 관계없이 스판의 소재들이 사용되어 실루엣의 용이함을 보여준다. 또한 <Figure 38>, <Figure 39>, <Figure 40>, <Figure 41>처럼 2014 S/S 컨셉에 의한 프린트 개발과 시어서커(seersucker) 소재와 같이 다양한 소재의 사용이 가능하다.



Figure 32. Singer Shinee's suit silhouette.
From [CELEBRITY] 샤이니 민호 종현 솔로 쇼케이스 MC [[CELEBRITY] Shinee Minho Jonghyun solo showcase MC]. (2016).
<http://blog.naver.com/lafigura>



Figure 33. Actor Jung's suit silhouette.
From [CELEBRITY] JUNG IL WOO, Asia Influence Eastern Awards. (2015).
<http://blog.naver.com/lafigura>



Figure 34. Actor Gee's suit silhouette.
From [MAGAZINE] The Celebrity SEPTEMBER 2016. (2016).
<http://blog.naver.com/lafigura>



Figure 35. Linen fabric.
From HOLLAND & SHERRY Linnen fabric. (2013).
<http://blog.naver.com/lafigura>



Figure 36. Perennia fabric.
From Hound's Tooth Check. (2011).
<http://blog.naver.com/lafigura>



Figure 37. Tweed fabric.
From 2011 F/W New Jacket. (2011).
<http://blog.naver.com/lafigura>



Figure 38. 2014 S/S Sound wave fabric I.
From Photographed by the author. (November 4,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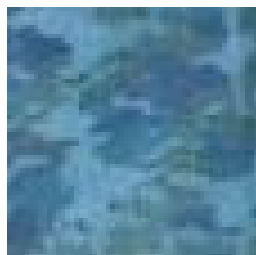


Figure 39. 2014 S/S Sound wave fabric II.
From Photographed by the author. (November 4, 2016)



Figure 40. Stretch chino fabric.
From Photographed by the author. (November 4,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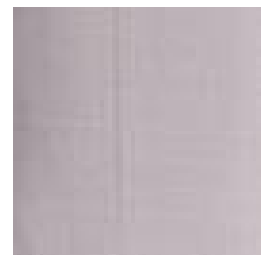


Figure 41. Seersucker fabric.
From Photographed by the author. (November 4, 2016)

4) 디테일

정장의 절개와 전반적인 스타일은 결정적으로 정장의 특징을 살리는 과정이다. 정장의 주머니 스타일, 라이닝, 단추소재와 그 외 독특하고, 특징

적인 ‘티켓 포켓 (ticket pocket)’이나 소매 여분의 단추 등 작은 디테일을 활용함으로써 정장을 입는 소비자의 개인적 성향이나 위트를 표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작은 디테일은 기존의 정장



Figure 42. Pointed button.
From Linnen navy blazer. (2011).
<http://blog.naver.com/lafigura>



Figure 43. Inner pipping.
From Linnen navy blazer. (2011).
<http://blog.naver.com/lafigura>



Figure 44. Pointed inner button.
From LA FIGURA-FINTES RED PIN STRIPE SUIT. (2010).
<http://blog.naver.com/lafigura>



Figure 45. Pants belt detail.
From LA FIGURA 라피규라-그레이 울 팬츠 [LA FIGURA-Gray wool pants]. (2010).
<http://blog.naver.com/lafigura>



Figure 46. Boutonniere detail.
From LA FIGURA casual jacket. (2009).
<http://blog.naver.com/lafigura>



Figure 47. Pocket transform.
From 2011 F/W New Jacket. (2011).
<http://blog.naver.com/lafigura>

을 한층 더 향상 시킨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를 위한 단정한 남성복 차림은 흰색 마 핸드ker프를 꽂기 위한 가장자리 천을 댄 가슴주머니와 부토니 예를 꽂기 위한 왼쪽 라펠의 단추 구멍이 필요하다. <Figure 42>, <Figure 43>, <Figure 44>, <Figure 45>, <Figure 46>, <Figure 47>에서 다양한 예들을 볼 수 있다.

2. 윌트 분석

영국 에드워드 시대에 시도한 체크무늬 정장 착용과 포멀웨어로 입을 수 있는 더블 브레스티드

정장 및 남색 정장에 갈색 스웨이드 신발의 새로운 스타일링으로 보수적인 슈트의 윌트를 주었다. 또한 미드나잇 블루 색상을 남성 정장에 적용시키는 예도 보여주었다.

20세기 미국의 경우, 아이비리그생들을 위한 룩, 상류층 남성들은 전통적인 편안함 위주의 미국 정장의 변화를 주는 윌트가 보이며 대표적인 인물로는 트루먼 대통령이 착용한 새로운 소재 개발로 만들어진 실루엣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영화 속의 남성 인물들에 의한 실루엣은 아르마니나 고티에 디자이너의 윌트 요소이다.

디자이너에 의해 이태리 컬렉션에서 보여준 부

드러운 직물의 소재와 피트 된 디자인, 새로운 색상, 디테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남성 정장의 개념을 바꾸었다. 또한 피티 우오모 박람회를 통해 고감도의 브리오니, 키톤 등의 차별화된 위트를 가진 남성복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라피규라 바이 더 스튜디오 케이 맨의 정장 실루엣을 살펴보면 2013년 F/W ‘보드룸’ 주제의 피트 된 쓰리 버튼 슈트의 실루엣, 비즈니스 룩과 캐주얼 룩의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더블 브레스트드 재킷에서도 위트의 예를 들 수 있다. 2014년 F/W ‘트레블메이커’의 컨셉에서 보이는 위트가 더 하여진 슈트와 탈부착 가능한 패딩 베스트의 실루엣이다. 2015 S/S ‘씨 컬렉션(Sea Collection)’에서는 동일한 소재의 셔츠와 재킷, 핫섬머 시즌의 컨셉에 맞는 버뮤다 팬츠의 활용이 보인다.

시즌 컨셉에 의한 프린트 소재 개발로 소재 활용의 위트가 보인다. 디테일의 활용은 더욱 개인의 취향이나 위트를 표현하는데 슈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바지 허리 중심에 고리를 추가하여 벨트를 고정시킬 수 있는 위트를 줄 수 있으며, 턱(tuck)의 활용으로 착용감을 고려한 위트를 줄 수 있다. 주머니의 소재 배색효과로 시각적인 위트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재킷의 안감 배색 효과와 포켓 부분의 포인트 단추 활용, 벨트의 밴드 장식의 효과도 위트의 요소로 보인다.

IV. 라 피규라 바이 더 스튜디오 케이 맨의 남성 맞춤 정장 디자인 발전 방안

2010년 즈음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클래식 남성복의 유행이 시장의 변화를 일으켰다. 과거 소수의 경제력이 있거나 혹은 연령이 높은 사람들만 입었던 것을 연령과 상관없이 멋을 내기 위해 슈

트를 입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인기에 힘입어 맞춤 슈트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현상이 시작되던 시기에는 아주 비싼 맞춤 슈트 집과 아주 저가의 체인점 두 부류로 양극화 되어있었는데, 최근엔 그 범위가 넓어졌다. 영국과 이탈리아의 장인들이 서울에서 제작하는 곳도 생기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색깔을 가지고 맞춤 정장을 꾸준히 발전시키는 곳도 전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브랜드 런칭 당시 국내 남성 기성복 슈트는 미국의 대량생산 체제의 대중적인 스타일 위주였음으로 이태리 스타일의 핏트 된 유럽식의 V자 형태의 재킷과 신체에 꼭 맞는 정장바지를 입는 것만으로도 실루엣에 기본을 만들 수 있었다.

현재 변화된 맞춤 정장 슈트 시장 상황에서 영국, 미국, 이태리 스타일로 한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각 나라의 스타일의 장점을 더해 우리나라 남성 체형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실루엣을 제안하는 것이 적합하다. 우리나라 슈트 업계 분포도를 통해 분석한 결과, 특히 디자이너가 제안하는 슈트의 필요성은 과거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장인 중심의 정장이 아니라 현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디자이너의 감각으로 재해석 된 클래식 정장으로, 시즌성을 부여하는 디렉팅이 요구되며 디자이너가 트렌드를 클래식에 적절히 믹스하여 실루엣, 원단, 색상, 디테일 등 차별화된 위트의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igure 48>, <Figure 49>, <Figure 50>을 보면 2016년 ‘모던 옛 타임리스(Modern yet Timeless)’를 주제로 전개하는 스튜디오 케이 맨의 정장 디자인 방안은 기존에 추구했던 슈트의 클래식함을 더 정제되고 모던한 감각이 표현된 슈트 스타일로 제시하였다.

남색 투 버튼 싱글 재킷에 갈색 신발을 신는 영국 에드워드 시대의 스타일링을 모던한 디자이너의 감성의 스타일링으로 재해석 하였다. 또한 갈



Figure 48. The Studio K Men 2016 Collection: Modern yet Timeless Navy suit.
From Modern yet Timeless-NAVY SUIT.
(2016).
<http://blog.naver.com/lafigura>



Figure 49. The Studio K Men 2016 Collection: Modern yet Timeless Corduroy suit.
From Modern yet Timeless-BROWN CORDUROY SUIT. (2016).
<http://blog.naver.com/lafigura>



Figure 50. The Studio K Men 2016 Collection: Modern yet Timeless Women gray suit.
From Modern yet Timeless-LIGHT GRAY SUIT.
(2016).
<http://blog.naver.com/lafigura>



Figure 51. Long suit styling.
From Modern yet Timeless-BLACK SINGLE COAT. (2016).
<http://blog.naver.com/lafigura>



Figure 52. Coat styling.
From Modern yet Timeless-CAMEL DOUBLE CHESTERFIELD COAT. (2016).
<http://blog.naver.com/lafigura>



Figure 53. Stylist Park's suit styling.
From Photographed by the author.
(November 6,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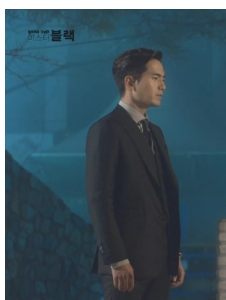


Figure 54. Actor Lee's suit style.
From [CELEBRITY] MBC 굿바이 미스터 블랙 이진욱 의상 [[CELEBRITY] MBC Good bye mr. black Lee Jin Uk Costume]. (2016).
<http://blog.naver.com/lafigura>



Figure 55. Actor Ko's suit style.
From [CELEBRITY] SBS 질투의 화신 고경표 의상 [[CELEBRITY] SBS Incarnation of Jealousy Go Kung Pyu Costume]. (2016).
<http://blog.naver.com/lafigura>



Figure 56. Singer Nam's suit style.
From [CELEBRITY] 에릭남 의상 [[CELEBRITY] Eric Nam Costume]. (2016).
<http://blog.naver.com/lafigura>

색 코듀로이 슈트와 보우타이로 소재의 차별화와 스타일링의 위트를 보여 주고 있다. 회색 투 버튼 싱글 슈트는 남성과 여성의 공유할 수 있는 룩을 제시 하였다.

<Figure 51>, <Figure 52>의 롱 재킷과 스니커즈 착용의 스타일링 연출과 더블 브레스티드 롱 재킷과 스니커즈, 진 스타일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룩이며, 또한 <Figure 53>의 스타일리스트 박만현의 슈트와 후드티의 착용은 또 다른 스타일링의 위트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 54>, <Figure 55>, <Figure 56>을 보면 2016년 드라마 『굿바이 미스터 블랙』에서의 이진욱의 정장 슈트의 착용, 드라마 『질투의 화신』에서 고정표의 맞춤 슈트, 가수 에릭남의 시어셔커 슈트 착용을 통해 라피규라 바이 더 스튜디오 케이 맨의 정제되고 모던한 감각의 스타일이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라 피규라 바이 더 스튜디오 케이 맨 남성 맞춤 정장의 조형적 특성과 디자인 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 및 이를 통한 위트 제시에 관한 결론을 조형적 특성, 위트 분석과 디자인 발전 방향으로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조형적 특성으로는 대표적인 정장 스타일의 분류 연구를 바탕으로 라피규라 바이 더 스튜디오 케이 맨 만의 고유 실루엣의 부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탈리아 스타일의 특별함은 직관적인 관점의 차이이다. 새빌로우나 미국의 아이비리그 재단사들이 가질 수 없는 식상한 정장 패턴이 아닌 이탈리아 스타일의 디자이너 브랜드만의 감각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새로운 디자인을 전개하는 것이다. 또한 이탈리아산의 패브릭의 이해와 소재의 활용도가 실루엣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한 제시로는 미국의 할리우드의 스타

기반 시스템을 통하여 슈트가 확산 유행되었듯이 언론매체나 드라마 등에서 연예인이 보여주는 실루엣을 통해 새로운 슈트 디자인이 부각 될 수 있다고 보인다.

둘째, 피트 된 쓰리 버튼 슈트의 실루엣과 2014년 F/W ‘트레블메이커’의 컨셉에서 보이는 위트가 더하여진 슈트와 탈부착 가능한 패딩 베스트의 실루엣을 볼 수 있으며 비즈니스 룩과 캐주얼 룩의 착용이 가능한 체크 소재의 더블 브레스티드 재킷에서도 위트의 예를 들 수 있다. 프린트 소재 개발로 소재와 디테일의 활용은 위트를 표현하고 슈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바지 허리 중심에 고리를 추가하여 벨트를 고정시킬 수 있는 효과와 바지의 활용 또는 주머니의 소재 배색효과로 시각적인 위트를 느낄 수 있다. 재킷의 안감 배색 효과와 포켓 부분의 포인트 단추 활용, 벨트의 밴드 장식의 효과도 위트의 다양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남성 정장 역사의 이해를 기반으로 매 시즌 스토리의 디자이너 브랜드의 남성복 라인 디자인 전개가 가능하다고 본다. 남성 중심의 스타일의 확산지인 런던의 맨디즘과 같이 레저 활동 등의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하는 클래식한 남성 정장을 모던한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전개 할 수 있었다. 울 소재와 데님의 스타일링, 정장과 스니커즈의 조화, 텍스처 코듀로이 정장과 보타이의 스타일링, 정장과 후드티 등의 캐주얼 아이템과의 착용 등을 들 수 있다. 2016년 ‘모던 옛 타임리스’ 컨셉 디자인의 제시로 맞춤 정장에서만 가능한 전체적인 비율을 조절하여 신체의 장·단점을 보완, 개선 할 수 있다. 맞춤 고객의 개인적 성향이나 위트를 표현하는 작은 디테일의 활용도를 높이고 남성 전용의 핸드커프나 부토니에 등의 악세사리를 적용 할 수 있다. 감각적인 감성을 중심으로 실루엣, 소재, 디테일 스타일링의 활용은 2016년 발전 방안으로 위트의 요소를 더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연구를 중심으로 트렌드에 따른 시즌감의 반영 디자이너 브랜드의 특성부각, 체형에 따른 패턴의 연구, 캐주얼과 매칭 할 수 있는 부각된 스타일링 팁으로 브랜드를 발전시키는데 핵심요소가 되는 연구가 진행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ferences

- An, H. J. (2009). A study on the types of Korean men's business casual style. *The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Knit Design*, 7(1), 29-40.
- Anderson, R. (2009). *Bespoke: Savile Row Ripped and Smoothed*. London: Simon & Schuster.
- Banks, J., & De la Chapelle, D., Pulitzer, L. (2011). *Preppy cultivating ivy style*. New York: Random House Incorporated.
- [CELEBRITY] JUNG IL WOO, Asia Influence Eastern Awards. (2015, January 27). *THE STUDIO K MEN*. Retrieved September 25, 2016, from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lafigura&logNo=220254122652&categoryNo=24&parentCategoryNo=&from=postList>
- [CELEBRITY] MBC 굿바이 미스터 블랙 이진욱 의상 [[CELEBRITY] MBC Good bye mr. black Lee Jin Uk Costume]. (2016, April 6). *THE STUDIO K MEN*. Retrieved November 18, 2016, from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lafigura&logNo=220675970075&categoryNo=24&parentCategoryNo=&from=postList>
- [CELEBRITY] SBS 질투의 화신 고정표 의상 [[CELEBRITY] SBS Incarnation of Jealousy Go Kung Pyu Costume]. (2016, September 9). *THE STUDIO K MEN*. Retrieved November 18, 2016, from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lafigura&logNo=220808768636&categoryNo=24&parentCategoryNo=&from=postList>
- [CELEBRITY] 샤이니 민호 종현 솔로 쇼케이스 MC [[CELEBRITY] Shinee Minho Jonghyun solo showcase MC]. (2016, May 24). *THE STUDIO K MEN*. Retrieved September 25, 2016, from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lafigura&logNo=220717824581&categoryNo=24&parentCategoryNo=&from=postList>
- [CELEBRITY] 에릭남 의상 [[CELEBRITY] Eric Nam Costume]. (2016, May 9). *THE STUDIO K MEN*. Retrieved November 18, 2016, from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lafigura&logNo=220705651616&categoryNo=24&parentCategoryNo=0>
- Dandy. (n.d.). *WIKIPEDIA*. Retrieved September 18, 2016, from <https://en.wikipedia.org/wiki/Dandy>
- Flusser, A. (2002). *Dressing the man: Mastering the art of permanent fashion*. New York: Harpercollins.
- HOLLAND & SHERRY Linnen fabric. (2013, April 26). *THE STUDIO K MEN*. Retrieved September 4, 2016, from <http://blog.naver.com/lafigura?Redirect=Log&logNo=30166720946&from=postView>
- Hound's Tooth Check. (2011, April 18). *THE STUDIO K MEN*. Retrieved September 25, 2016, from <http://blog.naver.com/lafigura/30106908110>
- Jetted Pockets vs. Flap Pockets. (2010, April 21). *GENTLEMAN'S GAZETTE*. Retrieved December 19, 2016, from <https://www.gentlemansgazette.com/jetted-pockets>
- Kim, J. H., Cho, H. S., & Lim, H. J. (2010). Analysis and planning for modern men's formal wear.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0(2), 33-51.
- Kuchta, D. (2002). *The Three-Piece Suit and Modern Masculinity: England, 1550-1850 (Vol. 47)*.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A FIGURA casual jacket. (2009, September 15). *THE STUDIO K MEN*. Retrieved September 4, 2016, from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lafigura&logNo=30076666553&categoryNo=18&parentCategoryNo=&from=postList>
- LA FIGURA-FINTES RED PIN STRIPE SUIT. (2010, July 21). *THE STUDIO K MEN*. Retrieved September 25, 2016, from <http://blog.naver.com/lafigura/30090334906>
- LA FIGURA 라피규라-그레이 울 팬츠 [LA FIGURA-Gray wool pants]. (2010, April 16). *THE STUDIO K MEN*. Retrieved September 11, 2016, from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lafigura&logNo=30084445336&categoryNo=18&parentCategoryNo=0>
- Lee, J. J. (2012). *The measure of a man: the story of a father, a son, and a suit*. Toronto: The globe and mail.
- Lim, H. J., Kim, J. H., & Cho, H. S. (2010). A study of modern men's formal wear patterns and sewing techniqu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0(10), 28-46.
- Linnen navy blazer. (2011, May 8). *THE STUDIO K MEN*. Retrieved September 4, 2016, from <http://blog.naver.com/lafigura/30108202224>
- [MAGAZINE] The Celebrity SEPTEMBER 2016. (2016, September 9). *THE STUDIO K MEN*. Retrieved September 25, 2016, from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lafigura&logNo=220808734746&categoryNo=24&parentCategoryNo=&from=postList>
- Modern yet Timeless-BLACK SINGLE COAT. (2016, November 3). *THE STUDIO K MEN*. Retrieved November 18, 2016, from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lafigura&logNo=220852391298&categoryNo=35&parentCategoryNo=&from=postList>
- Modern yet Timeless-BROWN CORDUROY SUIT. (2016, November 3). *THE STUDIO K MEN*. Retrieved September

- 18, 2016, from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lafigura&logNo=220814829235&categoryNo=35&parentCategoryNo=0>
- Modern yet Timeless-CAMEL DOUBLE CHESTERFIELD COAT. (2016, November 3). *THE STUDIO K MEN*. Retrieved November 18, 2016, from <http://blog.naver.com/lafigura/220852399539>
- Modern yet Timeless-LIGHT GRAY SUIT. (2016, November 3). *THE STUDIO K MEN*. Retrieved September 18, 2016, from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lafigura&logNo=220814824743&categoryNo=35&parentCategoryNo=0>
- Modern yet Timeless-NAVY SUIT. (2016, November 3). *THE STUDIO K MEN*. Retrieved September 18, 2016, from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lafigura&logNo=220814827011&categoryNo=35&parentCategoryNo=0>
- Musgrave, E. (2009). *Sharp Suits*. London: Pavilion.
- Sea Collection. (2015a, June 20). *THE STUDIO K MEN*. Retrieved September 18, 2016, from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lafigura&logNo=220395999238&categoryNo=32&parentCategoryNo=&from=postList>
- Sea Collection. (2015b, June 20). *THE STUDIO K MEN*. Retrieved September 18, 2016, from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lafigura&logNo=220395997998&categoryNo=32&parentCategoryNo=0>
- Sea Collection. (2015c, June 20). *THE STUDIO K MEN*. Retrieved September 18, 2016, from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lafigura&logNo=220395993062&categoryNo=32&parentCategoryNo=0>
- Sea Collection. (2015d, June 20). *THE STUDIO K MEN*. Retrieved September 18, 2016, from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lafigura&logNo=220395987726&categoryNo=32&parentCategoryNo=0>
- Sherwood, J. (2010). *Bespoke: The Men's Style of Savile Row*. New York: Rizzoli.
- the board room Lookbook. (2013, March 13). *THE STUDIO K MEN*. Retrieved September 18, 2016, from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lafigura&logNo=30164747413&categoryNo=30&parentCategoryNo=&from=postList>
- the board room 2013 Lookbook. (2013, March 31). *THE STUDIO K MEN*. Retrieved September 18, 2016, from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lafigura&logNo=30164744229&categoryNo=30&parentCategoryNo=0>
- THE BONDS. (n.d.). 007. Retrieved October 22, 2016, from <http://www.007.com/characters/the-bonds>
- Travel Maker. (2013, December 23). *THE STUDIO K MEN*. Retrieved September 18, 2016, from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lafigura&logNo=3018141730&categoryNo=31&parentCategoryNo=0>
- Travel Maker_Denim SUIT. (2014, January 9). *THE STUDIO K MEN*. Retrieved September 18, 2016, from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lafigura&logNo=30182912062&categoryNo=31&parentCategoryNo=0>
- Travel Maker_Wool Jersey Suit. (2013, December 26). *THE STUDIO K MEN*. Retrieved September 18, 2016, from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blogId=lafigura&logNo=30182015250&categoryNo=31&parentCategoryNo=&from=postList>
- Vintage Handsome Men. (n.d.). *tumblr*. Retrieved October 23, 2016, from <http://vintagehandsomemen.tumblr.com/search/%20Fashion%20plate%20from%20Sartorial%20Arts%20Journal>
- 2011 F/W New Jacket. (2011, December 24). *THE STUDIO K MEN*. Retrieved September 4, 2016, from <http://blog.naver.com/lafigura?Redirect=Log&logNo=30118288162&from=postView>

A Study on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Design Development of ‘LA FIGURA by the studio K Men’

Kim, Jung He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Gacho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troduce a fashion brand, ‘LA FIGURA by the studio K Men’ and analyze men’s classic suits designed by LA FIGURA. By studying men’s classic suits from the early 17th century to the current trend first, the tendency of procedures continues knowing philosophy of LA FIGURA’s own creations for bespoke tailoring that LA FIGURA’s custom-made suits delicately represent selective styles for men’s classic suits not only for those styles reflected from the general tradition of men’s suits but also LA FIGURA’s ‘wit’ of the suit designs through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At last, the research suggests a future reference of what direction LA FIGURA could aim for and specific design ideas for the successful business such as a fabric, silhouette and a design detail. To briefly delineate the study, first, it describes chronological knowledge on men’s classic suits from the early 17th century when the first modernization of suit’s design had started and up until now about the current trend for men’s bespoke suits. Second, the study focuses on the analysis of LA FIGURA’s bespoke tailoring in terms of its previous collections from F/W of 2009 until the present. The analysis addresses three main styles of men’s suit including the British, Italian and the American suits to reflect on LA FIGURA’s bespoke design. It interprets how each style of suit has occurred based on the historic backgrounds for men’s classic suit design and some example of their brands. Third, the paper concludes with the suggestion for improvements for LA FIGURA’s brand image and techniques for suit’s design including fabric, silhouette and design detail.

Key words : men’s bespoke suit, wit, fabric, silhouette, detail